

[14]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https://hdl.handle.net/2324/2186155>

出版情報：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14, 2014-04-01. Research Center for Korean Studies, Kyushu University
バージョン：
権利関係：

受賞論文紹介

崔慶原助教が日本国際政治学会 奨励賞を受賞

수상 논문 소개: 최경원 조교(연구교수)가 일본국제정치학회 장려상을 수상

韓国研究センターの崔慶原助教の論文「日韓安全保障関係の形成—分断体制下の『安保危機』への対応、1968年」(『国際政治』170号)が、日本国際政治学会第6回学会奨励賞を受賞した。10月26日に新潟で開催された2013年国際政治学会で受賞式が行われた。

今回の受賞論文は、1968年のいわゆる「安保危機」をめぐる対応の中で、日韓両国がどのように安保脅威を特定し、協力可能な領域を見出していったのかを描いたものである。韓国社会に混乱を引き起こし経済発展を妨害しようと、北朝鮮が武装ゲリラを韓国に頻繁に侵入させていた1960年代末、従来の全面戦争の脅威とは異なる「間接侵略」という新たな脅威が出てきていた。それに対し、日韓両国は、米国との同盟で全面戦争を阻止できるとした上で、ゲリラ掃討に当たる韓国警察の装備強化への協力を模索する。日本政府内では、「武器輸出三原則」との関連性をめぐり、外務省や通産省、法制局を巻き込んだ議論が展開されたが、協力に前向きな外務省と当時の政権による政治判断で韓国警察警備艇の提供する方針を固めた。最終的には韓国の国内政治や優先順位の再設定で実現には至らなかったが、その過程で日韓間で安全保障においても「協力可能な領域」を見出そうする関係が形成され、後に「安保経済協力」と呼ばれる日韓安保協力の起源となったことを実証的に解明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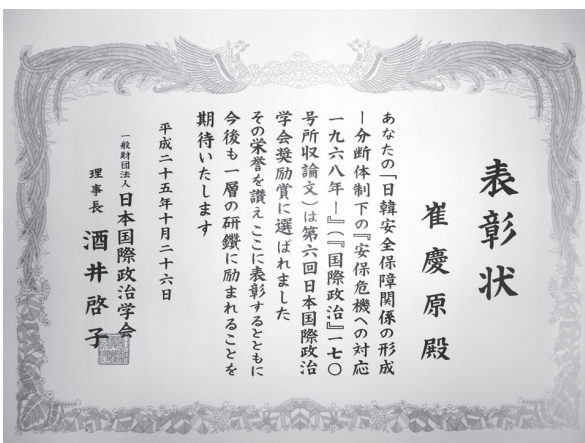
日韓米の一次史料を幅広く渉猟した実証性の高さ、特に従来の研究が米韓の外交文書に限定していたのに対し、本論文は日本の外交文書をも詳細に調べ、新しい知見を提示した点、分析視点において従来の研究が米国の働きかけや北朝鮮脅威認識などに焦点を合わせているのに対して、日韓の政治状況や政策決定過程を明らかにした点で高く評価された。



한국연구센터 최경원 조교(연구교수)의 논문 ‘한일 안전보장 관계의 형성-분단체제하의 안보위기에 대한 대응, 1968년’ (『국제정치』 170호)이 일본 국제정치학회 제6회 학회 장려상을 수상했다. 10월 26일 니가타에서 열린 2013년 국제정치학회에서 수상식이 있었다.

이번 수상논문은 1968년 이른바 ‘안보위기’에 대한 대응 속에서 한일 양국이 어떻게 안보위기를 특정해 내고 협력가능한 영역을 발견했는가를 분석한 것이다. 한국사회에 혼란을 일으켜 경제발전을 방해하고자 북한이 무장게릴라를 한국에 빈번하게 침투시켰던 1960년대말, 종래의 전면전쟁의 위협과는 다른 ‘간접침략’이라는 새로운 위협의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한일 양국은 미국과의 동맹으로 전면전쟁을 저지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게릴라 진압에 투입되는 한국 경찰의 장비강화에 대한 협력을 모색한다. 일본 정부내에서는 ‘무기수출3원칙’과의 연관성을 둘러싸고 외무성, 통산성, 법제국을 포함한 논의가 전개되었는데, 협력에 적극적인 외무성과 당시 정권의 정치적 판단으로 일본이 한국 경찰에 경비정을 지원하는 방침을 정하게 된다. 최종적으로는 한국의 국내정치와 우선순위의 변경으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한일 양국이 안정보장 분야에 있어서 협력 가능한 영역을 발견하려는 관계가 형성되어 이후에 ‘안보경제협력’이라고 불리게 되는 안보협력의 기원이 된 점을 실증적으로 해명했다.

한미일의 1차자료를 폭넓게 조사하여 실증성을 높였고, 특히 종래의 연구가 한미의 외교문서에 한정되었던 것에 반해 본 논문은 일본의 외교문서도 상세하게 조사하여 새로운 발견을 제시한 점, 분석시점에 있어서 종래의 연구가 미국의 개입이나 대북 위협인식 등에 초점이 맞춘 것에 반해 본 연구는 한일의 정치상황과 정책결정 과정을 밝혔다라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韓国国際交流財団助成

「朝鮮半島グローバルヒストリーの構築」プロジェクト

Global History Workshop and Open Lectures on the Korean Peninsula

平成24年度に韓国国際交流財団の韓国学関連プログラムに採択された研究プロジェクト「朝鮮半島グローバルヒストリーの構築」が、平成25年度までの2年間にわたって行われた。本研究プロジェクトは、韓国の高麗大学校との共同研究により、日韓の歴史認識を相互に検証しながら研究と教育を新しく展開し、未来志向的な日韓関係の構築を目指すものであり、今年度も日韓の研究者がワークショップを通じて、各々の研究成果を報告した。

各研究者が対象とする時代は、古代から現代までとその範囲は広く、各時代における新しい韓国史像を再発見し、韓国史の認識を再構築することが期待されている。ワークショップでは、学界を牽引する韓国史の研究者による発表はもちろん、日韓の若手・次世代研究者による発表が多くなされた。韓国史を中心とした日韓の国際的な学術交流が促進されただけでなく、勢いのある若手研究者と経験及び実績の豊かなベテラン研究者との相互研鑽の場となり、多くの成果が得られた。

2012년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 관련 프로그램에 채택된 연구 프로젝트, ‘한반도 글로벌 히스토리의 구축’이 2013년까지 2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본 연구 프로젝트는 한국의 고려대학교와의 공동 연구로서, 한국과 일본의 역사 인식을 서로 검증해가며 연구와 교육을 새롭게 펼쳐 나아가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들이 워크숍을 통하여 각자의 연구 성과를 보고하였다.

각각의 연구자들이 연구 대상으로 삼은 시대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그 범위가 넓으며, 각 시대에서 한국사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여 한국사에 대한 인식을 재구축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학계를 견인하는 한국사 연구자들에 의한 발표는 물론, 한국과 일본의 젊은 차세대 연구자들에 의한 발표도 많이 진행되었다. 또한 한국사를 주제로 하는 한국과 일본의 국제적인 학술 교류가 촉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열정적인 젊은 연구자들과 경험과 실적이 풍부한 베테랑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깊이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장(場)이 되어 많은 성과를 얻었다.

「朝鮮半島グローバルヒストリーの構築」第4回ワークショップ		한반도 글로벌히스토리의 구축 제4회 워크숍	
日時:2013年2月20日(水) 13:00~17:30 会場:高麗大学校大学院図書館401号 後援:韓国国際交流財団(Korea Foundation)		일시: 2013년 2월 20일(수) 13:00~17:30 회장: 고려대학교 대학원도서관401호 후원: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13:20-14:00	立花大輔(九州大学大学院人文科学府博士後期課程) 「8・9世紀新羅における唐制受容の様相」 다치바나 다이스케(규슈대학 대학원 인문과학부 박사과정) 「8・9世紀新羅에 있어서 唐制受容의 様相」		
14:00-14:40	金亨根(高麗大学校一般大学院韓国史学科博士課程) 「韓國近代史と新聞資料—North-China Heraldを中心に—」 김형근(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사학과 박사과정) 「한국근대사와 신문자료-노스차이나헤럴드를 중심으로-」		
14:40-15:20	和田健太(九州大学大学院人文科学府修士課程) 「朝鮮王朝初期の流刑制度—配所詳定法の制定過程を中心に—」 와다 겐타(규슈대학 대학원 인문과학부 석사과정) 「朝鮮王朝初期의 流刑制度—配所詳定法の 制定過程을 중심으로—」		
15:40-16:20	姜制勳(高麗大学校文科大学韓国史学科・教授) 「朝鮮 王陵」 강제훈(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한국사학과 교수) 「朝鮮 王陵」		
16:20-17:30	濱田耕策(九州大学人文科学研究院・教授) 「崔致遠と新羅史」 하마다 고사쿠(규슈대학 인문과학연구원 교수) 「崔致遠과 新羅史」		

「朝鮮半島グローバルヒストリーの構築」第1回ワークショップ		한반도 글로벌히스토리의 구축 제1회 워크숍	
日時: 2013年11月22日(金) 10:00~17:50		일시: 2013년 11월 22일(금) 10:00~17:50	
会場: 高麗大学校MK館201号円形講義室		회장: 고려대학교MK관 201호 원형강의실	
後援: 韓国国際交流財団(Korea Foundation)		후원: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海外碩学招聘講演 해외석학 초빙강연			
10:30-12:00	濱田耕策(九州大学人文科学研究院教授) 「渤海史をどのように理解するか—冊封と時期区分—」 하마다 고사쿠(규슈대학 인문과학연구원 교수) 「발해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책봉과 시기구분—」		
研究報告 연구 보고			
14:00-14:35	森平雅彦(九州大学人文科学研究院准教授) 「モンゴル時代の東アジア海域と朝鮮半島」 모리하라 마사히코(규슈대학 인문과학연구원 부교수) 「몽골시대 동아시아 해역과 한반도」		
14:35-15:10	Leighanne Yuh(高麗大学校韓国史学科教授) 「Beyond the “Hermit Kingdom”: Pragmatism and Late Choson Dynasty Foreign Affairs」 리앤 유(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한국사학과 교수) 「Beyond the “Hermit Kingdom”: Pragmatism and Late Choson Dynasty Foreign Affairs」		
15:20-15:55	曹慧英(高麗大学校韓国史学科修士課程) 「新羅景文王・憲康王代の渡唐留学生の役割比較」 조혜영(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한국사학과 석사과정) 「신라 경문왕·헌강왕대 도당유학생 역할 비교」		
15:55-16:30	高村源太郎(九州大学人文科学府博士課程) 「朝鮮後期軍役の面里代定政策からみる負担者把握方法」 다카무라 겐타로(규슈대학 대학원 인문과학부 박사과정) 「조선후기 군역의 면리대정 정책으로부터 보는 부담자 파악 방법」		
16:40-17:15	李明學(高麗大学校韓国史学科博士課程) 「1920—1930年代朝鮮普通銀行の‘営利性’と‘公共性’の衝突—普通銀行合同論と増設論の論争を中心に—」 이명학(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한국사학과 박사과정) 「1920-1930년대 조선 보통은행의 ‘영리성’과 ‘공공성’의 충돌—보통은행 합동론과 증설론의 논쟁을 중심으로—」		
17:15-17:50	江上慎太郎(九州大学比較社会文化学府博士課程) 「朴正熙政権の文化政策に関する—考察— —ハン글専用の‘二面性’と大統領の認識を中心に—」 에가미 신타로(규슈대학 대학원 비교사회문화학부 박사과정) 「박정희정부의 문화정책에 관한 일고찰—한글 전용의 ‘이면성’과 대통령 인식을 중심으로—」		

日韓海峡圏カレッジ キャンパス福岡・釜山

2013年8月16日から30日まで、韓国の釜山大学校との国際共同教育プログラムである日韓海峡圏カレッジ(文部科学省採択事業)「キャンパス釜山」・「キャンパス福岡」を行った。本プログラムは、両校の新入生50名ずつ計100名が2週間にわたって釜山大学校と九州大学を往復しながら、キャンパスを共有し、相互理解を深めるとともに、共通課題を発見し解決する力を備えたアジアに強いグローバル人材を育成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る。日韓双方の学生は、日韓の政治・外交の問題だけでなく、経済、環境、教育、そして産業技術等、日韓が直面している様々な課題を扱った講義を聞き、それをもとに、ディスカッションを行った。共通言語である英語を駆使し、受け身の講義だけでなく、相手の考えを聞き、自分の考えを伝えるといったグローバル人材に不可欠なコミュニケーション能力を高めるプログラムを受講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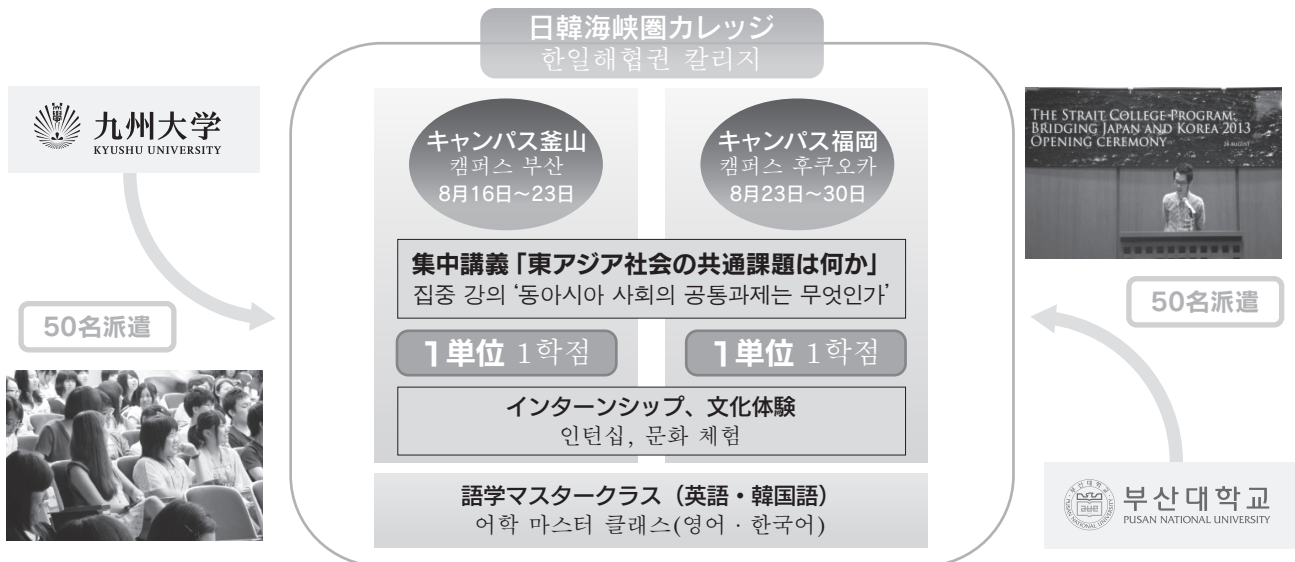
また、「キャンパス福岡」では、九州の有力企業・機関でのインターンシップを実施し、5名1グループで準備をしたプレゼンテーションを行った。学生たちはチームで課題に取り組んで発表し、企業の方からフィードバックを得ることで、これまでとは違う多様な視点に触れることができた。さらに、すべての課程を履修した学生には、九州大学で1単位、釜山大学校で1単位が付与され、単位互換を実現した。

2013年12月8日には、本プログラムに参加した両国の学生による報告会(共催:福岡県国際交流センター)をアクロス福岡こくさいひろばで開催した。他大学の国際交流担当者、保護者の方々、一般学生等が参加して本プログラムの成果を共有し、プログラムの運営に関する情報交換ができた。学生たちは、「キャンパス福岡」と「キャンパス釜山」での経験にしっかり意義付けし、概念化して個性豊かなプレゼンテーションを行った。また、多くの人々の前で、自分の経験をもとに、長期留学を含む将来像を描いたことは、学生それぞれが未来について明確な方向性をもつ良い機会となった。何よりも本プログラムが一過性の交流プログラムに留まらず、学生の更なる成長を促す触媒としての役割を果たしていること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た。本報告会には、文部科学省国際統括官も参加され、学生の報告に対する講評をいただいた。一般聴衆からも学生に対する励ましの言葉があり、地域がともにグローバル人材を育成していくことを実感した。



규슈대학교와 한국의 부산대학교는 2013년 8월 16일부터 30일까지 보름간 국제공동교육 프로그램인 한일해협권칼리지(문부과학성 채택 사업) ‘캠퍼스 부산’과 ‘캠퍼스 후쿠오카’를 실시했다. 두 대학의 신입생이 각 50명씩 참가하여 총 100명이 참가하는 본 프로그램은 2주에 걸쳐 부산대와 규슈대를 오가며 진행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캠퍼스를 공유하여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한일 양국의 공통과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아시아 전문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일 양국의 학생들은 한일 간의 정치, 외교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환경, 교육, 산업기술 등 한국과 일본이 직면해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강의를 듣고 이를 기반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공통어인 영어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여 글로벌 인재에게 필수불가결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캠퍼스 후쿠오카’에서는 규슈의 유력기업 및 기관에서 인턴십을 실시했고, 학생 5명이 한 조를 이뤄 준비했던 내용을 각 기관의 관계자들 앞에서 발표했다. 조 단위로 발표를 준비한 학생들은 각 기관 관계자들에게 피드백을 받아 여태까지와는 다른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었다. 더불어 모든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규슈대에서 1학점, 부산대에서 1학점을 받아 학점 교환 또한 이루어졌다.

2013년 12월 8일, 본 프로그램에 참가한 양국 학생들의 보고회(공동 주최 : 후쿠오카현 국제교류센터)가 아크로스 후쿠오카 국제광장(고쿠사이히로바)에서 개최됐다. 타 대학의 국제교류담당자, 보호자, 일반학생 등이 참가하여 본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캠퍼스 후쿠오카’와 ‘캠퍼스 부산’에서의 경험에 의의를 부여하고 구체적인 감상을 정리하여 개성이 돋보이는 발표를 했다.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계획한 유학 등의 미래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학생들 개개인이 미래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을 설정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본 프로그램이 일회성 교류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더 많은 성장을 촉진시키는 촉매로서 기능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보고회에는 문부과학성 국제통괄관도 참가해 학생들의 보고에 대해 평가했다. 일반 청중들도 학생들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 지역이 함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해 간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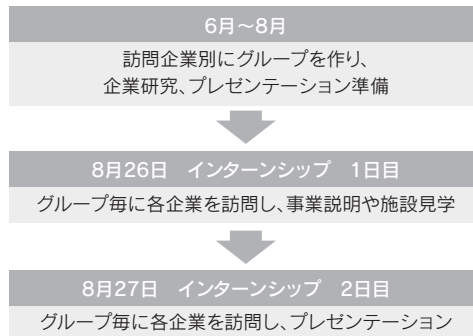


◆年間スケジュール

2013年6~7月		英語・韓国語マスタークラス(前期)	영어·한국어 마스터 클래스(전반기)
九州大学カレッジ生のみ受講できる会話中心の英語・韓国語クラス。8月のキャンパス福岡・キャンパス釜山までに韓国の文化を交えつつ、英会話、韓国語会話を習得。		칼리지 참가자만 수강할 수 있는 회화 중심의 영어·한국어 클래스. 8월에 캠퍼스 후쿠오카·캠퍼스 부산에 참가할 때까지 한국의 문화를 배우면서 영어 회화와 한국어 회화를 습득.	
2013年8月		キャンパス福岡、キャンパス釜山	캠퍼스 후쿠오카, 캠퍼스 부산
8月16日	九州大学カレッジ生、福岡から釜山へ出発。 규슈대학 칼리지생, 후쿠오카에서 부산으로 출발		
8月16日~23日	【キャンパス釜山】釜山大学にて特別講義、企業訪問、文化体験等 【캠퍼스 부산】부산대학교에서 특별 강의, 기업 방문, 문화 체험 등		
8月23日	九州大学・釜山大学校カレッジ生、ともに釜山から福岡へ 규슈대학과 부산대학교의 칼리지생들이 함께 부산에서 후쿠오카로 출발		
8月23日~29日	【キャンパス福岡】九州大学にて特別講義、インターンシップ、文化体験等 【캠퍼스 후쿠오카】규슈대학에서 특별 강의, 인턴십, 문화 체험 등		
8月30日	釜山大学校カレッジ生、福岡から釜山へ帰国 부산대학교 칼리지생, 후쿠오카에서 부산으로 귀국		
2013年11~2014年2月		英語・韓国語マスタークラス(後期)	영어·한국어 마스터 클래스(후기)
冬季キャンパス参加者対象に、プレゼンテーションやディスカッション、スピーチ等を集中的にトレーニングして、高いレベルの言語習得を目指した。		겨울 캠퍼스 참가자를 대상으로 발표, 토론, 스피치 등을 집중적으로 훈련하여 높은 차원의 언어습득을 목표로 하였다.	
2013年12月8日		キャンパス福岡・釜山 報告会	캠퍼스 후쿠오카·캠퍼스 부산 보고회
夏季プログラムに参加した両国の学生が、アクロス福岡にて自分の経験をもとに、長期留学を含む将来像を描いた報告を行った。		여름 프로그램에 참가한 양국의 학생들이 아크로스 후쿠오카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기 유학을 비롯한 미래 계획에 대해 발표하였다.	
2014年2月		冬季キャンパス	겨울 캠퍼스
2月17日	九州大学カレッジ生、福岡からソウルへ出発 규슈대학 칼리지생 후쿠오카에서 서울로 출발	2月20日	フィールドワーク 필드워크
2月18日	江華島見学 강화도 견학	2月21日	板門店見学 판문점 견학
2月19日	延世大学校にてプレゼンテーション、ディスカッション 연세대학교에서 프레젠테이션, 디스커션	2月22日	九州大学カレッジ生、釜山から福岡へ帰国 규슈대학 칼리지생 부산에서 후쿠오카로 귀국

◆インターンシップの概要 ※日程:2013年 8月 26日~27日 (2日間)

<p>《プレゼンテーションのテーマ一覧》</p> <ol style="list-style-type: none"> 住友商事九州株式会社 「東アジアをつなぐ新しいビジネスプラン」 九州電力株式会社 「再生可能なエネルギーの普及拡大方策」 やまやコミュニケーションズ株式会社 「東アジアの国において自国の食品をもって新しい市場を創造する。そのための問題と課題はなにか。」 NTT西日本 「東アジアの社会問題解決に向けIT利活用戦略ーブロードバンド回線 (FTTH)を活用した新たな生活スタイル・行動スタイルの提案ー」 福岡観光コンベンションビューロー 「WebサイトとSNSを活用した国際都市福岡の情報発信モデルの策定」 	<p>《프레젠테이션 주제 일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Sumitomo Corporation Kyushu Co.,Ltd.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플랜 KYUSHU ELECTRIC POWER CO., INC.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보급 확대 방안 YAMAYA COMMUNICATIONS Inc. 동아시아 국가에서 자국 식품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조한다. 이를 위한 문제와 과제는 무엇인가? Nippon Telegraph and Telephone West Corporation 동아시아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IT 활용 전략 - FTTH를 활용한 새로운 생활 스타일과 행동 스타일 제안- Fukuoka Convention & Visitors Bureau Web사이트와 SNS를 활용한 국제도시 후쿠오카의 정보 발신 모델 책정
--	--



韓国研究センター 県民講座

한국연구센터 후쿠오카현민 강좌

福岡県民講座は、韓国の文化を広く福岡県民に紹介することで、日本と韓国の市民交流・相互理解に資することを目的に、当センターが学問的成果の社会化あるいは共有といった社会貢献の一環として行っている行事である。今年度は「人物で学ぶ韓国の歴史と文化」というテーマの下、新羅時代から近代まで東アジアの中で生きた韓国の代表的な知識人に焦点を当て、4名の講師陣による講義が福岡県国際交流センターこくさいひろばにて行われた。

九州大学からは、濱田耕策先生(九州大学人文科学研究院教授: 韓国古代史)と森平雅彦先生(九州大学人文科学研究院准教授: 韓国中世近世史)の講演があった。濱田先生は、新羅末期の文人である崔致遠について、森平先生は、高麗後期の禅僧である冲止について講演された。学外からは、正田啓佑先生(福岡女子大学名誉教授: 中国哲学史)と白川豊先生(九州産業大学国際文化学部教授: 韓国近代文学史)の講演があった。正田先生は、朝鮮儒学の最高峰であり、著名な朱子学者である李退溪について、白川先生は、韓国近代文学の代表的作家である李光洙と、植民地期の一面を描いた作家である廉想渉についてであった。

本講座で紹介された知識人たちの中には、日本ではあまり馴染みのない人物も含まれるが、現在学界でスポットがあてられている人物であり、日本との関係も深い。今回の各講演では、韓国の歴史の中でどのような人々が生き、どのような文化が築かれたのかを紐解くとともに、隣国の歴史・文化を理解することの重要性を知り、それらが自国の歴史・文化にどのように関わっているのかを見直す場となった。

후쿠오카 현민 강좌는 후쿠오카 현의 시민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림으로써 일본과 한국의 시민교류 및 상호이해를 돕기 위해, 본 센터가 학문적 성과의 사회화 혹은 공유를 통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행사이다. 올해는 '인물로 배우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라는 주제 아래, 후쿠오카 현 국제교류센터 국제광장에서 4명의 강사진이 신라 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에서 살았던 한국의 대표적인 지식인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강의하였다.

규슈대학에서는 하마다 고사쿠 교수님(규슈대학 인문과학연구원 교수:한국고대사)과 모리히라 마사히코 교수님(규슈대학 인문과학연구원 부교수: 한국 중세근세사)이 강연을 맡았다. 하마다 교수님은 신라 말기의 문인인 최치원에 대해 강연하였다. 한편 모리히라 교수님은 고려 후기의 선종 승려인 충지에 대해 강연하였다. 다른 대학에서는 히키타 게이유 교수님(후쿠오카여자대학 명예교수:중국철학사)과 시라카와 유타카 교수님(규슈산업대학 국제문화학부 교수:한국근대문학사)이 강연을 맡았다. 히키타 교수님의 강연은 조선 유학의 최고봉으로 불리는 저명한 주자학자인 이퇴계에 대한 강연이었다. 그리고 시라카와 교수님은 한국 근대문학의 대표적 작가인 이광수와 더불어, 식민지 시기의 단편을 그려낸 작가로 알려져 있는 염상섭에 대하여 강연하였다.

본 강좌에서 소개된 지식인들 중에는 일본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도 포함되어 있지만, 현재 학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일본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이번 강연회는 한국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인물들이 살아왔으며, 어떤 문화가 형성되었는지를 파헤쳐보는 한편, 이웃 나라의 역사,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이웃 나라의 역사, 문화가 일본의 역사, 문화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자리였다.

日 時 : 2013年11月30日
 会 場 : アクロス福岡3Fこくさいひろば
 主 催 : 九州大学韓国研究センター
 共 催 : 公益財団法人福岡県国際交流センター
 後 援 : 韓国国際交流財団

일 시 : 2013년 11월 30일
 회 장 : 아크로스 후쿠오카3층
 주 최 : 규슈대학 한국연구센터
 공동주최 : 후쿠오카현 국제교류센터
 후 원 : 한국국제교류재단



第9回世界韓国研究コンソーシアム・워크숍

9th Worldwide Consortium of Korean Studies Centers Workshop

- ◆主催: 北京大学韓国学研究中心
- ◆主管: 北京大学朝鮮文化研究所
- ◆日時: 2013年7月4日~6日
- ◆後援: 韓国国際交流財団、北京大学亜太研究院
- ◆주최: 북경대학한국학연구센터
- ◆주관: 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
- ◆일시: 2013년 7월 4일~6일
- ◆후원: 한국국제교류재단, 북경대학 아태연구원



第9回世界韓国研究コンソーシアム・워크숍が2013年7月4日から6日にかけて、北京大学陳守仁国際会議センターで開催された。今回の워크숍には、本学を含む17大学から計23名の次世代韓国学研究者が発表者として参加し、日々の研究成果を発表した。

워크숍は「韓国伝統文化と世界化」というテーマの下、8つの分科(1分科: 韓国学、世界との出会い。2分科: 韓国史。3分科: 自主国防と教育。4分科: 東アジア文学の多様性。5分科: 哲学と宗教。6分科: 近代の中韓、日韓関係。7分科: 韓国の伝統分科と芸術。8分科: 言語学)に分かれて研究発表が行われた。本学からは、比較社会文化学府博士後期課程の武藤優、金裕美の両氏が発表者として参加した。

発表者らは、若手研究者ならではの斬新なアプローチによって、独創性に富んだ研究成果をそれぞれ披露した。また、参加者同士の質疑応答の時間には、白熱した議論が繰り広げられ、発表者にとって有益な意見交換の場となった。各分科では、多くの卓越した論文が発表されたが、その中でも特に優秀な論文が3篇選出され、表彰された。各受賞者と選出された論文は次の通りである。

1. クォン・バンソク(ハーバード大学)「自主の構成: 現代韓国の防衛産業開発過程における軍・民の協力、1971-1979」
2. チャン・ボウン(北京大学)「韓・中両国の新文化運動登場の背景的特性の比較」
3. チン・ヒ(ロンドン大学)「評価言語行為に現れる保障ストラテジーと配慮倫理について」

また、各分科の発表以外に、韓国学における世界的な碩学の講演に接する機会が設けられた。李岩教授(中央民族大学)の「朝鮮朝中後期四色党争の文化的性格」、朴泰均教授(ソウル大学)の「作動しない停戦協定」と題する講演が行われた。

最後に韓国研究センター機関長セミナーの時間には、各機関の長とすべての発表者が参加し、各機関で提供する若手韓国学研究者たちの支援方法についての機関長の紹介とあわせて、現在の韓国学が進むべき方向性についての討論が展開された。一方で、第1回から世界韓国研究コンソーシアムの会長であったUCLAのジョン・ダンカン教授が第9回の워크숍を最後に、会長を退任し、第2代会長として本学の松原孝俊教授が選出された。

제 9회 세계한국연구 김소시업 워크숍이 2013년 7월 4일부터 6일까지 북경대학교 진수인국제회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에는 분교를 포함하여 17대학에서 총 23명의 차세대 한국학연구자가 발표자로서 참가하여, 그 동안의 연구결과물을 발표하였다.

워크숍은 “한국전통문화와 세계화”란 부제 아래 총 8분과(1분과: 한국학, 세계와의 만남. 2분과: 한국역사. 3분과: 자주국방과 교육. 4분과 동아시아 문학의 다양성. 5분과: 철학과 종교. 6분과: 근대의 중한, 한일 관계. 7분과: 한국의 전통 문화와 예술. 8분과 언어학)로 나뉘어 각 분과별 주제를 가지고 발표가 진행되었다. 분교에서는 비교사회문화학부 박사과정의 무토 유우 씨와 김유미 씨의 2명이 발표자로 참가하였다.

발표자들은 젊은 연구자만의 참신한 분석 방법에 의하여, 독창성이 풍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참가자 간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뜨거운 토론이 전개되었다. 여러 훌륭한 논문이 발표되었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우수한 3편의 논문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1. 권반석(하버드대) “자주의 구성: 현대 한국 방위산업 개발과정에서의 군민 협력, 1971-1979”
2. 장보운(북경대) “한·중 양국 신문화운동 등장의 배경적 특성 비교”
3. 진희(런던대) “평가 화행에서 나타나는 보상 책략과 배려윤리에 대하여”

각 분과별 발표 이외에도 세계적 석학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암 교수님(중앙민족대)께서는 “조선 조중후기 사색당쟁의 문화적 성격”, 박태균 교수님(서울대)께서는 “작동하지 않는 정전협정”이란 주제로 강연을 해주셨다.

마지막으로 한국연구센터 기관장 세미나 시간에는 각 기관의 기관장, 그리고 발표자 전원이 참석하여,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젊은 한국학 연구자들의 지원방법에 대한 기관장의 소개와 더불어 현재의 한국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편 제 1회부터 세계한국연구 김소시업 회장을 맡고 계셨던 UCLA의 존 던컨 교수님께서 제 9회 워크숍을 끝으로 회장을 은퇴하시고, 2대 회장으로 분교의 마쓰바라 다카토시 교수님이 선출되었다.

韓国学研究会「韓国学の発掘と展開 —韓国朝鮮語の姿・善隣友好の記録—」

한국학연구회 ‘한국학의 발굴과 전개—한국조선어의 모습·선린 우호의 기록—’

これまで韓国研究センターでは、歴史学や政治学分野の研究会、ワークショップを数多く開催し、日本における韓国学研究の基盤構築に努めてきた。今回はその韓国学の一分野として、韓国朝鮮語を通時的・共時的観点から多角的に分析し、当該分野における幅広い知見を得られるような研究会を企画した。特に今回は、江戸期の朝鮮語学書を書誌学的・言語学的に研究しておられる岸田文隆先生(大阪大学大学院教授)をお招きし、基調講演で先生の最新の研究に接することができた。江戸期に日朝間で取り交わされた朝鮮語ハングル書簡が新たに存在することが最近明らかになったが、岸田先生は、歴史学・言語学・書誌学的観点から検討する日韓共同の調査事業の中心として、この朝鮮語ハングル書簡の研究に従事なさっている。この度の講演では、朝鮮語ハングル書簡の紹介とその価値、解読作業の現状、言語的特徴等を中心にご発表いただいた。当時のことばが如実に反映されたこの書簡は、表記や文法といった言語的特徴はもとより、外交や日朝関係の歴史的新事実を知ることが可能となることから、興味が尽きない。

また、基調講演の後、現代語の音韻論と文法論分野で個人研究発表があったが、こちらの方も発表者と聴衆の双方が、時間が経つのを忘れる程、活発な議論が交わされた。専攻・非専攻を問わず多くの方が研究成果を共有できる機会として、今回の研究会は非常に充実したものとなった。

한국연구센터에서는 역사학이나 정치학 분야의 수많은 연구회,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일본에서의 한국학 연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에는 그 한국학의 한 분야로서 한국조선어를 통시적·공시적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분야의 폭넓은 지견을 얻을 수 있는 연구회를 기획하였다. 특히 이번에는 에도(江戸) 시대의 조선어학습서를 서지학적·언어학적으로 연구하시는 기시다 후키타카 교수님을 초빙하여, 기조 강연에서 교수님의 최신 연구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에도 시대에 조일 간에서 주고 받고 했던 조선어 한글 서간이 예전부터 학계에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에 새로운 서간의 존재가 밝혀졌다. 기시다 선생님은 역사학·언어학·서지학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한일 공동조사 사업의 중심으로서 이 한글 서간 연구에 종사하고 있다. 강연에서는 한글 서간의 소개와 그 가치, 해독 작업의 현황, 언어적 특징 등을 중심으로 발표해 주셨다. 그 당시의 언어가 여실히 반영된 이 서간들은 표기나 문법과 같은 언어적 특징을 비롯하여, 외교나 조일 관계에 관한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흥미롭다.

또한 기조 강연 후, 현대한국어의 음운론과 문법론 분야에서 개인 연구 발표가 있었는데, 발표자와 참가자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활발한 토론이 행해졌다. 전공·비전공이 상관없이 많은 분들에게 연구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로서 알찬 연구회가 되었다.

韓国学研究会「韓国学の発掘と展開—韓国朝鮮語の姿・善隣友好の記録—」
한국학연구회 ‘한국학의 발굴과 전개—한국조선어의 모습·선린 우호의 기록—’

日時: 2014年1月25日(土) 13時30分~17時	일시: 2014년 1월 25일(토) 13시 30분~17시
会場: 九州大学韓国研究センター	회장: 규수대학 한국연구센터
主催: 宗家文書朝鮮語ハングル書簡調査検討会	주최: 宗家문서 조선서간 조사검토회
後援: 九州大学韓国研究センター	후원: 규수대학 한국연구센터



- 13:30~13:40 開会の挨拶 개최 인사
- 基調講演 기조 강연
- 13:40~15:40 岸田文隆(大阪大学大学院言語文化研究科教授)
「対馬宗家文書朝鮮語ハングル書簡の資料的価値」
기시다 후키타카(오사카대학대학원 언어문화연구과 교수)
「對馬宗家문서 조선어 한글 서간의 자료적 가치」
- 研究発表 연구 발표
- 15:50~16:20 金娥璵(九州大学大学院人文科学府博士後期課程)
「朝鮮語の江原道注文津のアクセント報告—注文津方言と東京方言の音韻的境界—」
김아린(규수대학대학원 인문과학부 박사과정)
「조선어의 강원도 주문진의 악센트 보고—주문진 방언과 도쿄 방언의 음운적 경계—」
- 16:20~16:50 小島大輝(九州大学韓国研究センター非常勤研究員)
「韓国語における特異な助詞結合について」
고지마 다이키(규수대학 한국연구센터 비상근연구원)
「한국어의 특이한 조사 결합에 대하여」
- 16:50~17:00 閉会の挨拶 폐회 인사

韓国研究センター 客員教授紹介

한국연구센터 객원 교수 소개

第31代 金榮載 (釜山大学校教授)

任期: 2012年12月14日~2013年2月27日

専門分野は、開放マクロ経済学、金融経済学。釜山大学校卒業後、1993年にワシントン大学で博士号を取得。2002年から釜山大学経済学部で教鞭をとる。韓国取引所先任研究委員、韓国銀行釜山本部諮問教授等を歴任。第61回定例研究会(2013年2月22日)では、「The Financial Safety Nets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Korean Case Study」と題する発表が行われた。



제 31대 김영재 (부산대학교 교수)

임기: 2012년 12월 14일~ 2013년 2월 27일

전문 분야는 개방기시경제학, 금융경제학. 부산대학교를 졸업한 후, 1993년에 워싱턴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2002년부터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부임. 한국거래소 선임연구위원, 한국은행 부산본부 차문교수 등을 역임. 제61회 정례연구회(2013년 2월 22일)에서는 'The Financial Safety Nets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Korean Case Study'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다.



第32代 John Lie (カリフォルニア大学バークレー校教授)

任期: 2013年5月2日~2013年7月30日

専門分野は、社会理論、政治経済学、社会的アイデンティティ。ソウルに生まれ、東京とホノルルで育つ。ハーバード大学卒業後、同大学院修士課程及び博士課程修了。1988年に博士号を取得。オレゴン大学助教授、イリノイ大学アーバナ・シャンペーン校教授、ミシガン大学教授等を歴任。2003年より現職。『Modern Peoplehood』等の著書がある。第62回定例研究会(2013年7月18日)では、「錯認、否認、認識」と題する発表が行われた。



제 32대 John Li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교수)

임기: 2013년 5월 2일~ 2013년 7월 30일

전문 분야는 사회이론, 정치경제학, 사회적 정체성. 서울에서 태어나 도쿄와 호놀룰루에서 자랐다. 하버드대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마쳤다. 1988년에 박사학위를 취득. 오리건대, 일리노이대 어바나-샴페인캠퍼스, 미시간대 등에서 교수직을 역임. 2003년부터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 교수로 부임. "Modern Peoplehood" 등의 저서가 있다. 제62회 정례연구회(2013년 7월 18일)에서는 '착인, 부인, 인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다.



第33代 金正鎬 (韓国農村經濟研究院先任研究委員)

任期: 2013年9月3日~2013年11月28日

専門分野は農業経済学。土地経済、農業経営、農業構造、政策評価等の研究を行い、数多くの論著がある。ソウル大学校卒業後、日本に留学。京都大学大学院博士課程修了。1986年に博士号取得。韓国農村經濟研究院で研究に従事し、韓国農村經濟研究院副院長、附設農林技術管理センター所長、先任研究委員等を歴任。2013年12月に定年を迎える。第63回定例研究会(2013年11月19日)では、「韓国と日本の農業構造変化の比較分析—農業経営体の性格の変化を中心に—」と題する発表が行われた。



제 33대 김정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기: 2013년 9월 3일~ 2013년 11월 28일

전문 분야는 농업경제학. 토지경제, 농업경영, 농업구조, 정책평가 등의 연구를 하여 수많은 논지가 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후, 교토대에서 박사과정을 마쳤다. 1986년에 박사학위를 취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연구에 종사하여 연구원 부원장, 부설 농림기술관리센터 소장, 선임연구위원 등을 역임. 2013년 12월에 정년을 맞이하였다. 제63회 정례연구회(2013년 11월 19일)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농업구조 변화의 비교 분석-농업경영체의 성격 변화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다.



次世代研究者の研究紹介1

차세대 연구자의 연구 소개1

主観性とモダリティを中心とした日韓両国語の伝聞表現比較 —情報に対する話者の関与度を中心に—
주관성과 모달리티를 중심으로 한 한·일 양국어의 전문표현 비교 -정보에 대한 화자의 관여도를 중심으로-

九州大学比較社会文化学府 博士後期課程 吳先珠

규슈대학교 비교사회문화학부 박사과정 오선주

本研究は一般的に「そうだ」に代表される日本語の伝聞表現「そうだ」「という」「らしい」「ようだ」「とのことだ」「ということだ」「って」「と聞く」を中心に韓国語の伝聞表現と比較するものである。本研究の主要目的は日韓両国語の伝聞表現を中心に、モダリティの観点から話者が命題内容を伝達しようとする場合の話者が、自身が伝達しようとする命題の内容の把握、それによる話者の伝達態度、表出される心理状態がどのようになっているのか等を、命題内容に対する話者の関与の程度と関与の仕方を通して、話者の命題内容に態度を明確にしようとするものである。

日本語の伝聞表現に関する研究としては「という」とその縮約として知られている「って」、「ということだ」と「とのことだ」が同じ意味をもっているのか等を比較研究している。同様に証拠性を表すといわれている「ようだ」と「らしい」を代表的な伝聞表現「そうだ」と比較して、これらの表現がどの程度の伝聞性を持っているのか等、主観性とモダリティの側面から情報についての話者の関与度を考察している。

韓国語の伝聞表現に関する研究としては、これまでの日韓伝聞比較研究が「-고 하다」「-라고 하다」「-단다」とその縮約形「-는데」「-다대」等を中心になされたのに対し、本研究では、終結語尾の範囲をより拡大して「-던데」「-다나」「-다지」「-는 것이다」「-는 모양이다」等、伝聞表現に使われる終結語尾の範囲を拡大比較し、韓国語の伝聞表現に使われる個別の終結語尾間の内的意味を、主観性とモダリティを中心に比較することに重点を置いている。

これまでの研究結果を述べると、日本語の「との」「という」と「とのことだ」「ということだ」を比較した結果、まず「との」と「とのことだ」が引用表現の中でも伝聞にだけ使われる表現であるために、「という」と「ということだ」より使用範囲が狭く、話者の発話内容(情報)が「他人のことば」であることをより強調することで、情報に関する話者の関与度も同じく低いといえる。また、証拠性を表すとする「ようだ」「らしい」を代表的な伝聞表現「そうだ」と比較した結果、「ようだ」「らしい」「そうだ」の順序で伝聞性は強くなるが、情報に関する引用話者の関与度は低くなった。

今後、日本語の伝聞表現の個別的な意味把握とあわせて、日本語の伝聞表現に対応する韓国語伝聞表現の用例をさらに抽出し、日韓両国語の伝聞表現を情報に関する話者の関与度を中心に図式化していく考えである。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そうだ’로 대표되는 일본어의 전문표현 ‘そうだ’, ‘という’, ‘らしい’, ‘ようだ’, ‘とのことだ’, ‘ということだ’, ‘って’, ‘と聞く’를 중심으로 한국어의 전문표현과 비교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한·일 양국어의 전문 표현을 중심으로 모달리티의 관점에서 화자가 명제내용을 전달하려고 할 경우의 화자가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명제의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또한 그에 따른 화자의 전달태도는 어떠한지, 어떠한 심리상태를 표출하고 있는지를 명제내용에 대한 화자의 관여는 어느 정도인가, 또한 관여한다면 어떤 식으로 관여하고 있는지를 통해 화자의 명제내용에 태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일본어의 전문표현에 관한 연구로는 ‘という’와 그 축약형이라고 알려진 ‘って’, 그리고 ‘ということだ’와 ‘とのことだ’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비교 연구하고 있다. 또한 증거성을 나타낸다고 일컬어지는 ‘ようだ’와 ‘らしい’를 대표적인 전문 표현 ‘そうだ’와 비교하여 이들 표현들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 주관성과 모달리티의 측면에서 정보에 대한 화자의 관여도를 고찰하고 있다.

한국어 전문표현에 관한 연구로는 지금까지의 일한 전문비교연구가 ‘-고 하다’, ‘-라고 하다’, ‘-단다’와 그 축약형 ‘-는데’, ‘-다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종결어미의 범위를 더 확대하여 ‘-던데’, ‘-다나’, ‘-다지’, ‘-는 것이다’, ‘-는 모양이다’ 등 전문표현에 쓰이는 종결어미의 범위를 확대·비교하여 한국어 전문표현에 쓰이는 개별 종결어미간의 내적 의미를 주관성과 모달리티를 중심으로 비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로는 일본어의 ‘との’, ‘という’와 ‘とのことだ’, ‘ということだ’를 비교한 결과 우선 ‘との’와 ‘とのことだ’가 인용표현 중에서도 전문에만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という’와 ‘ということ다’보다 사용범위가 좁고 화자의 발화내용(정보)이 “남의 말”임을 더 강조함으로써 정보에 관한 화자의 관여도 또한 낮다고 할 수 있다. 또 증거성을 나타낸다고 하는 ‘ようだ’, ‘らしい’를 대표적인 전문 표현 ‘そうだ’와 비교한 결과 ‘ようだ’, ‘らしい’, ‘そうだ’의 순서로 전문성은 강해지지만 정보에 관한 인용화자의 관여도는 낮아졌다.

앞으로 일본어의 전문표현의 개별적인 의미파악과 더불어 일본어 전문표현에 대응하는 한국어 전문표현의 용례를 더 추출하여 한일 양국어의 전문표현을 정보에 관한 화자의 관여도를 중심으로 도식화해 나갈 생각이다.

次世代研究者の研究紹介2

차세대 연구자의 연구 소개2

朴正熙政権の文化政策 - ハングル専用を通じた再検討 -

박정희 정권의 문화정책 - 한글 전용(專用)을 통한 재검토 -

九州大学比較社会文化学府 博士後期課程 江上慎太郎

규슈대학 비교사회문화학부 박사과정 예가미 신타로

本研究は、ハングル専用から朴正熙政権を考察し、主に文化面から政権の再検討を試みるものである。本研究の主なポイントは(1)これまでに多く見られた政治・経済・軍事面からのアプローチでなく、文化面から朴正熙政権を考察する点、(2)ハングル専用が韓国語における日本語系語彙や外来語を区別するという解釈のみに留まっていた従来の研究を越えて、文化政策の観点を導入することで一貫した考察を試みる点である。以上のような、新たな考察視点をいながらハングル専用が文化政策の一環として派生したもの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する。

昨年秋に開催された朝鮮学会大会(2013年10月6日、於天理大学)では、「朴正熙政権の文化政策に関する一考察-ハングル専用を通じた再検討-」というテーマで報告を行い、朴正熙政権期の文化政策について1960年代と1970年代をそれぞれ概観した後、朴正熙大統領のハングル専用認識に関して、当時の文教部長官であった閔寛植の回顧や新資料である漢文教育に関する見解を記した大統領メモを用いた。ハングル専用に関しては、ハングル専用=漢字廃止という従来の認識に対し(1)大統領の真意がハングルの比重を高めることであり、漢字廃止を指すものではなかったこと。(2)新資料から漢文教育が復活した1972年の段階でも、ハングル専用に関する言及の確認をそれぞれ明らかにした。合わせて、ハングル専用が国語醇化作業も含めて、韓国語における日本語系語彙や外来語を区別するという、「純粋な韓国語(순수한 우리말)」再構築のための一手段を担ったことや、それが文化政策から派生的に生まれたものであったことも指摘した。

このほか、AKS合同セミナー(2013年6月21日、於韓国学中央研究院)では、「朴正熙政権の文化政策-ハングル専用を通じた再検討-」というテーマで報告を行い、朝鮮半島グローバルヒストリーの構築・ワークショップ(2013年11月22日、於高麗大学)では、「朴正熙政権の文化政策に関する一考察-ハングル専用の「二面性」と認識を中心に-」というテーマで報告を行った。

本研究の展望として、文化政策の観点から朴正熙政権を考察するために、表記作業の手段であったハングル専用に対して、韓国語における固有語を保護する役割を果たした国語醇化作業にも着目しながら、ハングル専用を一つの例として文化政策との関係性を明らかにする。その後、文化的意義に注目した「朴正熙の再評価」へと繋げて行きた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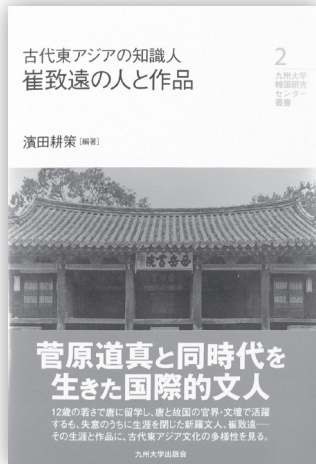
본 연구는, 한글 전용을 통해 박정희 정권을 고찰하고, 주로 문화적 측면에서 정권을 재검토하려는 시도이다. 본 연구의 주된 포인트는 (1)지금까지 많이 보였던 정치, 경제, 군사적 측면에서의 접근(어프로치)이 아닌 문화적 측면에서 박정희 정권을 고찰한다는 점, (2)한글 전용이 한국어에서 일본어계 어휘나 외래어를 구별한다는 해석에만 머물러 있던 종래의 연구를 뛰어넘어 문화정책의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일관된 고찰을 시도하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새로운 고찰 시점을 이용하면서 한글 전용이 문화정책의 일환으로서 파생된 것임을 밝힌다.

작년 가을에 개최된 조선학회대회(2013년 10월 6일, 덴리대학)에서는 ‘박정희 정권의 문화정책-한글 전용(專用)을 통한 재검토-’ 라는 주제로 보고를 했다. 보고에서는 박정희 정권의 문화정책에 대해서 당시의 문교부 장관이었던 민관식의 회고를 이용하였고, 새로운 자료로서 한문교육에 관한 견해를 적은 대통령 메모도 이용하였다. 한글 전용에 관해서는 한글 전용=한자 폐지라는 종래의 인식에 대해 (1)대통령의 진의가 한글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며, 한자 폐지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2)새로운 자료를 이용하여 한문 교육이 부활한 1972년의 단계에서도 한글 전용에 관한 언급을 확인한 점을 분명히 하였다. 더불어 한글 전용이 국어순화작업도 포함하여, 한국어에서 일본어계 어휘나 외래어를 구별한다는 ‘순수한 우리말’ 재구축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던 점이나 그것이 문화 정책에서 파생적으로 생겨난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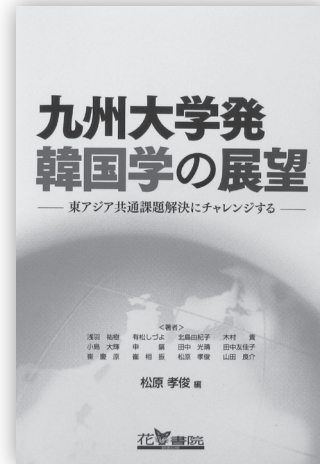
이 밖에도 AKS 합동세미나(2013년 6월 21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박정희 정권의 문화정책-한글 전용(專用)을 통한 재검토-’ 라는 주제로 보고를 하였고, 한반도 글로벌 히스토리 구축·워크숍(2013년 11월 22일, 고려대학교)에서는 ‘박정희 정권의 문화정책에 관한 고찰-한글 전용의 ‘이면성’과 인식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보고를 하였다.

본 연구의 전망으로서 문화정책의 관점에서 박정희 정권을 고찰하기 위해, 한국어의 고유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 국어순화작업에 착안하면서, 표기작업의 수단이었던 한글 전용이 문화정책과 관련이 있는 하나의 예시임을 밝힌다. 그 뒤에, 문화적 의의에 주목한 「박정희의 재평가」로 이어가고 싶다.

刊行物紹介



古代東アジアの知識人崔致遠の人と作品



九大発韓国学の展望

古代東アジアの知識人崔致遠の人と作品 (九州大学韓国研究センター叢書2)

濱田耕策 編著 九州大学出版会 定価 5,040円

<歴史編>

第一章 新羅の文人官僚崔致遠の“生”と“思想”	濱田 耕策
第二章 新羅文人崔致遠と唐末節度使高駘の前半生	静永 健
第三章 崔致遠の儒教的政治理念と社会改革案	張 日圭
第四章 崔致遠と阿倍仲麻呂—古代朝鮮・日本における「中国化」との関連から見た—	川本 芳昭

<文学編>

第五章 新羅・崔致遠と晩唐・顧雲の交遊について	竹村 則行
第六章 『千載佳句』所収崔致遠逸詩句初探	静永 健
第七章 崔致遠『桂苑筆耕集』における唐代に現れた詩語について	西山 猛

<書誌編>

第八章 『経学隊仗』の成立と崔致遠	柴田 篤
第九章 『西岳志』異本考—その概要と類型化—	六反田 豊

<付録>

『三国史記』卷第四十六、列伝第六、崔致遠伝 ほか3篇	川西 裕也
----------------------------	-------

九大発韓国学の展望—東アジア共通課題解決にチャレンジする—

松原孝俊 編 花書院 定価 2,000円

「反日」化する韓国司法と日韓条約体制：「合意は拘束する pacta sunt servanda」と信頼外交	浅羽 祐樹
在韓米軍の削減と日韓安保経済協力—「四つのプロジェクト」をめぐる協力を中心に—	崔 慶原
韓国民主化のなかの司法府—「権力の侍女」から「人権の守護者」へ—	木村 貴
植民地朝鮮半島と日本人—聞き取り調査からのアプローチ—	山田 良介
植民地地下における朝鮮人母親の「皇国臣民」化と「国語」教育	有松しづよ
韓国における「私教育」問題と「江南」地域の形成過程	田中 光晴
朝鮮総督府済生院養育部の研究—農場移転から見る孤児養育の変化—	田中友佳子
「東萊府使接倭使図」の再考—景観描写の分析と年代推定の限界性を中心に—	崔 相振
「植民者」から「理解者」へ—「植民2世」の植民地経験をめぐる語りを中心に—	申 鎬
朝鮮における山神の両義性に対する—考察—	北島由紀子
日本語と韓国語における感覚形容詞の対照語彙論的分析—「寒い」と「춥다」による連体修飾の対応関係を中心に—	小島 大輝
琉球の朝鮮語通詞と朝鮮の琉球語通詞	松原 孝俊

韓国研究センターの研究活動一覧

年	月 日	内 容	その他
2013	4月25日	韓国セヌリ党 田夏鎮 国会議員 招聘講演	【主催・主管】社団法人ベンチャー企業協会INKE福岡支部 【共同主管】九州大学韓国研究センターKS-DP 【会場】九州大学箱崎キャンパス国際ホール
	5月2日	John Lie 客員教授 着任(第32代)	
	5月15日	韓国セヌリ党 閔丙珠 国会議員 来学	
	6月21日	九州大学・韓国学中央研究院 次世代韓国学合同セミナー「東アジアの共通課題解決への挑戦」	【会場】韓国学中央研究院
	7月4日～6日	第9回世界韓国学研究コンソーシアム・ワークショップ	【主催】北京大学韓国学研究中心 【主管】北京大学朝鮮文化研究所 【助成】韓国国際交流財団、北京大学亜太研究院 【会場】北京大学陳守仁国際会議センター
	7月17日	駐福岡大韓民国総領事館 朴鎮雄 総領事 来学	
	7月18日	第62回 定例研究会 John Lie(UC Berkeley)「錯認、否認、認識」	【会場】韓国研究センター
	7月30日	John Lie 客員教授 離任(第32代)	
	8月16日～30日	平成25年度日韓海峡圏カレッジ キャンパス釜山・福岡	【助成】文部科学省特別経費採択プログラム 【会場】釜山大学校/九州大学
	9月3日	金正鎬 客員教授 着任(第33代)	
	9月6日～7日	福岡・釜山フォーラム	【会場】電気ビル共創館
	10月9日	スタンフォード大学アジア太平洋研究センター長 シン・ギウク教授 来学	
	11月19日	第63回 定例研究会 金正鎬(韓国農村経済研究院)「韓国と日本の農業構造変化の比較分析 —農業経営体の性格の変化を中心に—」	【会場】韓国研究センター
	11月22日	「朝鮮半島グローバルヒストリーの構築」第1回ワークショップ	【助成】韓国国際交流財団 【会場】韓国・高麗大学校MK館201号円形講義室
	11月28日	金正鎬 客員教授 離任(第33代)	
	11月30日	県民講座「人物で学ぶ韓国の歴史と文化」	【主催】公益財団法人福岡県国際交流センター 【助成】韓国国際交流財団 【会場】福岡県国際交流センターこくさいひろば(アクロス福岡)
	12月8日	「朝鮮半島グローバルヒストリーの構築」第2回ワークショップ	【助成】韓国国際交流財団 【会場】九州大学法文系講義棟
	12月8日	平成25年度日韓海峡圏カレッジ キャンパス福岡・釜山報告会	【助成】文部科学省特別経費採択プログラム 【会場】福岡県国際交流センターこくさいひろば(アクロス福岡)
	12月9日	韓国国際交流財団 黄五錫東京事務所長 来学	
2014	1月25日	韓国学研究会「韓国学の発掘と展開—韓国朝鮮語の姿・善隣友好の記録—」	【主催】宗家文書朝鮮書簡調査検討会 【会場】韓国研究センター
	1月27日～2月21日	高麗大学校からの学生インターンシップ受入	
	2月4日	全旻穆 客員教授 着任(第34代)	
	2月16日～18日	「朝鮮半島グローバルヒストリーの構築」第3回ワークショップ	【助成】韓国国際交流財団 【会場】敬天閣、ほか
	2月17日～22日	平成25年度日韓海峡圏カレッジ 冬季キャンパス	【助成】文部科学省特別経費採択プログラム 【会場】延世大学校、ほか